

# 나주시,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나섰다

47조여원 경제 효과 발생 기대  
직류산업 세계 시장 선점 목표  
해외 진출 연계 국내기업 선점  
전력수요 해결 단계별 추진

나주시가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에 나섰다.

직류산업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약 47조8000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돼 세계 첫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지 선정 이후 올해 4월16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정부로부터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2024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나주시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해 에너지산업 및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혁신산단에 기구축된 MVDC 스테이션을 활용, 전력기자재의 실증·인증을 통해 기술개발과 표준을 만

들어 직류산업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목표다.

직류 배전망(35kV→5kV→1.5kV) 실증 인프라 구축과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직류 전압 기자재 제품 실증, 인증 획득, 해외 진출까지 연계해 국내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범위는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혁신산단, 나주 동수농공단지산단, 일반산단을 포함한 나주시 일원 12.1km<sup>2</sup>로 지정됐다.

한국전력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남TP,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일진전기(주)를 포함한 23개 기업이 참여해 특구 내 직류 전력 기자재 설계, 설치, 운용 등 다양한 실증을 할 수 있

다.

이번 사업은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상용화의 글로벌 거점 도약을 목표로 에너지자립, 에너지 안보 선제적 대응 및 전력수요 해결을 위해 단계별 추진한다.

1단계는 2024~2028년까지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국내 실증을 위한 Live Test-Bed를 구축해 실증을 완료하고 글로벌 직류 기준을 마련한다.

2단계는 2028~2029년까지 서남권 8.2GW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실증결과를 적용, 세계 최대 규모의 직류 전력망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성과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는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 확보, 세계 1 등 제품 3개 선점, 유니콘 기업 1개사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향후 10년 후 직류 기자재 및 운영기술이 글로벌 시장 10%를 차지할 경우 약 47조8000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시는 글로벌 혁신 특구 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수도권과 동부권으로 이송하는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라며 "다가오는 분산 에너지 요소 기술과 직류 배전망 운용에 대한 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 국가유공자 각별 예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보훈명예수당에 이어 올해는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지난해 7월 부터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에 지급하고 있다. 수당 인상을 통해 순국선열 님을 기리고 애국·희생정신을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10만원→12만원, 배우자 유족수당도 5만원→7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에서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확대했다.

3·1절,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6·25

전쟁일 등 보훈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해 순국선열의 님을 기리고 애국,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유공자·유족 좌석을 맨 앞줄로 배치하는 등 유공자 존경과 예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경영 6·25참전유공자회 나주시지회장은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참전수당을 인상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참전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며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주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마을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펼친다.

나주시 제공

## '생활쓰레기' 조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나주시가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방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실명제, 건물 신축 시 쓰레기 배출신고 및 배출장소 확보, 종량제봉투의 국가유공자 무상지급·가격인상·디자인 변경 등이 담겼다.

우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로 정했다. 기존에는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 일 오전 5시까지 배출 가능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해 상호 또는 주소를 기재하기로 했다.

수거 후에는 전용수거용기를 건물 내부로 이동 보관해야 한다.

10세대 이상 주택과 5호 이상 상가를 새롭게 신축할 때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도 설치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시기를 당초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봉투에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추가해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가정에서 버리는 깨진 유리,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불연성 마대도 신규 판매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생활쓰레기 관련된 4건의 조례와 규칙 일부개정안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 '안전우산 230개 지급' 안심 등교 환경 조성

나주시가 관내 초등학교생들의 안전한 등교 환경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빛누리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어린이 '안전우산' 230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캠페인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나주시, 나주경찰서, 나주교육지원청, 나주청년회의소, 나

주녹색어머니연합회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나주시가 제작한 '안전우산'은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방사피를 부착한 우산으로 초등학교 1학년 1000여 명에게 8일까지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안전우산 2000개를 보급한 바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컨설팅

선동마을 시작 16곳 대상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마을 16곳을 대상으로 마을컨설팅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인식전환', '환경정화', '경

관개선'을 목표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전남도 시책사업이다.

나주시의 경우 올해 137개 마을이 참여해 '마을 상징물 조성', '담장 벽화 그리기', '대문 명패 만들기', '주민 쉼터 조성' 등 마을별 특색에 맞는 경관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요조사

를 통해 선정된 16개 마을에 대해 컨설팅단을 참여시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3일 봉황면 선동마을, 세지면 반월마을·계량마을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마을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 나주시, 메타버스 기술 거점 허브센터 구축

실감콘텐츠 경쟁력 강화

현실 세계와 같은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용어인 '메타버스' 기술이 나주를 거점으로 한층 더 고도화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내년도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올해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센터 위치는 당초 빛가람동으로 신청했으나 사업 전담기관인 NIPA 사업비 적정성 심의에서 임차료 예산 축소 검토 요청이 있어 적합한 위치를 검토 중이다.

이 사업엔 전남도와 나주시가 주관하고 전주시와 광주시가 참여한다.

올해는 테스트 장비와 교육장 구축 등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2025년부터는 기업 수요 맞춤형 실증 지원과 메타버스 아카데미 등 실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조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기기로 접속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상의 세계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다운로드 수 5

억 회 이상을 기록 중인 모바일 게임 로블록스를 비롯해 메타버스119 안전체험관, 직업체험관, 식품 홍보·마케팅, 의사 국가 시험 실기시험 평가 등이 있으며 게임·교육·산업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콘텐츠 실증', '서버 사용 및 콘텐츠 기술 최적화·고도화' 지원, '인재 양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 간 협의체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제작된 메타버스 콘텐츠를 상용화하기 이전 5G환경에서 실증하고 끊임 현상 등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사전 발견해 기술을 최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개발자 양성, 기업 수요 맞춤형 재직자 대상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연관 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인프라 협력 체계도 강화하는 등 메타버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조대봉 기자